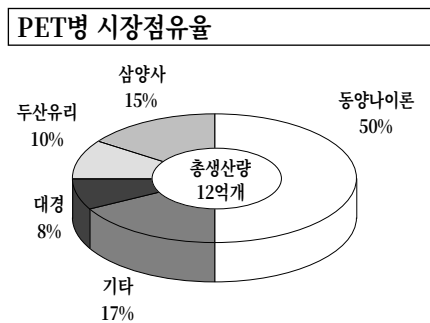


PET병 수거부진 재활용 걸림돌

삼양사 적자운영 ... 수거체계 미비 95년 1200톤 그쳐

PET병 재활용문제가 최대의 난제로 부상, 관련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ET병 수거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용공장을 가동시킨 삼양사는 95년 막대한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양사에 따르면, 95년 총 100억원을 투자해 연간 8000톤 규모의 재활용공장을 가동했으나, 생산은 1200톤에 그쳐 가동률이 33.3%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삼양사는 95년 30억~40억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PET병 수거체계 미비가 원인으로 95년 수거된 PET병은 1200톤에 그쳐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거부진은 당초 서울시와 무상공급을 체결했으나, 지자체 실시이후 각 구청과 직접 연계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 공급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삼양사는 성남과 창동에 각각 집하장을 설치하여 자체조달 구매를 시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거된 PET병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서울시가 계약을 위반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96년말 또는 97년초 6000톤 규모의 재활용공장 시공을 계획했던 동양나이론은 시장진출을 결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 음료기업에 PET병 수집을 의무화, 경제성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 국내 PET병 생산량은 12억개에 그쳐 94년의 13억7000개보다 12.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생산량은 동양나이론이 94년 6억개에서 95년 16.7% 감소한 5억개, 삼양사는 94년 3억개에서 10% 감소한 2억7000개에 머물렀다.

이와달리 청량음료용 PET병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두산유리는 94년 1억500만개에서 95년 1억2000만개로 12.4% 증가했다.

이에따라 PET병 시장점유율은 동양나이론 50%, 삼양사 15%, 두산유리 10%, 대경 8%, 기타 17%로 나타났다.

95년 PET병 생산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이상저온과 식혜와 같은 대체음료의 등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식혜시장은 2000억원을 형성, PET병의 수요를 감소시켰고, 건강음료로서 농협특산품이 대거 등장, 청량음료 및주스에 대부분 사용되는 PET병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ET병의 가격은 내압병 170원, 내열병 260원, 내열내압병 230원, 상압병 12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강세는 원료인 PET칩이 95년7월 이전 Kg당 1000원에서 1700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PET병은 유리병에 비해 용도가 다양하지 못해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예상하기 어렵고 PET병 재활용 처리마저 부진, 조속한 재활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장침체가 가속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6/2/26>

